

‘AI기본법’ 국회 통과...광주 AI집적단지 탄력

AI 2단계 개발 속도·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총력 AI영재고 건설 사업비 재정 부담 합의...건립 속도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 시 AI 2단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한 대안으로 상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는 AI 집적단지와 전담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겨있어 광주 시 AI 2단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AI기본법’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AI 집적단지를 지정,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에 따라 광주 첨단지구 소재 인공

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집적단지 전담 기관으로 지정·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 AI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AI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 추진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4천2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했다.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 시설도 구축했다. 여기에 오는 2029년까지 9천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영재고 설립도 본격화된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AI영재고 건립 사업비의 재정 부담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기 때문

이다.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30%를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AI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AI 2단계 사업 등 AI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도, 하반기 특교세 236억 확보

전남도는 29일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정기분으로 총 16개 사업 2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지역 현안 수요 8개 사업 129억원, 재난 안전 수요 8개 사업 107억원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으로 확보한 60억원보다 176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역대 정기 교부액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보다 42억원(16.5%) 증가한 총 296억 원을 확보한 것은 어느 때보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값진 성과로 분석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최근 국제세수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 감소로 지방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김영록 지사가 중앙 정부에 민생예산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치수 안전성 및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시원기자

2026년 전국도서관대회 광주서 열린다

10월28-30일...3천500여명 독서진흥정책 공유

국내 최대 규모 도서관 행사인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오는 2026년 광주에서 열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비

즈니스룸에서 한국도서관협회, 광주관광공사와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개최지 지원사항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도서관 장서 점검
광주 북구 중흥도서관은 지난 27일 어린이실 등 보유 장서 수와 도서 상태 등을 파악하는 장서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북구 제공)

협약식에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광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 박준영 광주관광공사 본부장이 참석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한국도서관협회 주최로 매년 10월 개최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광역자치단체 등 전국 도서관 관계자가 모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도서관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부대행사 추진 등 행정적 지원을, 광주관광공사는 MICE 사업 지원 등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2026년 10월28-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일 간 진행되며 총 3천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 도서관 홍보 및 독서진흥 정책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자리이자 지역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2026년 광주 대표도서관도 개관하는 만큼 도서관대회 개최 의미가 더욱 특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은진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7:41 해질 17:30
🌙 달돋이 07:12 달짐 16:32

인천	4/9	서울	2/9	춘천	-4/7	강릉	2/10
대전	1/10	대구	2/11	도쿄	2/11	부산	5/13
전주	3/11	광주	2/11	제주	7/14	여수	4/11
목포	5/11	흑산도	5/11	영광	3/11	진도	4/12
흑산도	5/11	제주	7/14	여수	4/11	흑산도	5/11
고흥	0/12	영광	3/11	진도	4/12	흑산도	5/11
곡성	-1/11	순천	0/12	영광	3/11	진도	4/12
해남	1/12	강진	1/12	장성	0/11	보성	-1/11
구례	0/12	완도	5/13	나주	0/11	여수	4/11
목포	5/11	광주	2/11	목포	5/11	광주	2/11
광주	2/11	목포	5/11	광주	2/11	목포	5/11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감기 조심해요)
👉 빨래 70 (야외건조 좋아요)
👉 세차 8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40 (실내운동 즐겨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0
남해 앞바다	0.5-1.5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0.5-1.0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0.5-1.5	1.0-2.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1:04	06:35
여수	09:03	02:10
녹동	09:50	03:07
	21:32	16:16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2월 31일(화)	☁ (2/6)	☀ (-3/3)	☀ (1/7)	☀ (1/7)	☀ (8/9)
1월 1일(수)	☀ (-2/8)	☀ (-2/7)	☀ (0/8)	☀ (-4/9)	☀ (5/11)
2일(목)	☀ (0/8)	☀ (-2/4)	☀ (2/8)	☀ (-2/8)	☀ (5/11)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지원 확대

용자지원 80억·대출금리 1% 적용...대상 업종도 8개로 늘려

전남도는 29일 “국내 정세 불안과 관광 여건 악화 속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전남도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용자 지원액을 기존 60억원에서 최대 8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자체 최저금리인 1%를 적용한다. 관광사업체가 직원 급여나 홍보비, 임

차료 등으로 활용할 운영자금 대상 업종도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식당업 등 기존 6개 업종에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을 추가해 8개 업종으로 늘린다.
업종별 용자 한도액도 각 1억원씩 증액한다. 여행업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야영장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

액한도액도 각 1억원씩 증액한다. 여행업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야영장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한다. 야영장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한다.
2025년 상반기 전남도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신청은 2025년 1월20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자는 용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토지대장, 금융기관 대출 상담 확인서 등을 첨부해 사업장 소재 시·군 관광부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당일까지 우편으로 신청 서류가 도착하도록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등록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가 신청 서류 심사와 사업장 현지 조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급 은행에서 용자를 실행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평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1, 6일로 끝나는 날

전국최초 퓨전시장 목사고을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0, 5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NAJU 나주시** **문의 : 062)650-2099**